

찬 송 586장 다 같 이
(마지막 절은 일어서서)

<예물바침>
(목사)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위엄과 영광이 다 주께 속하였나
이다.
(회중)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오니 우리가 주의 것으로 주께
드리나이다. (참조, 대상29:11)
(모두 자리에 앉습니다.)

성찬식

<평화통일을 위한 성만찬>

파송

<교회소식>

<파송의 찬양> : 하나님의 부르심 (일어서서)

- (1)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 (2)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후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위락의 말씀> (요일3:23)

(목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축복> (빌4:7)

(목사)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의 지식과 사랑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
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축복하심이 너
희 우리와 항상 함께할지어다.

(회중) 아멘!

<후주> (후주가 연주되는 동안 예배와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주일설교 : 을지자르갈 목사 / “하나님 안에 뿌리내린 사람”
/ 창49:22-26; 엡1:3-14; 요15:1-8 >

✠ 교회 소식 ✠

① 예배 : **“따뜻한 품이 있는 교회”**
전도는 영혼을 데려오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사랑으로 품어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우리 교회를 찾는 이들이 117년 역사 속에 흐르는
깊은 예수님의 온기를 느끼게 하소서.

② 광복기념주일 성찬식 : 9일(오늘) 1·2부 예배 시

③ 모임
- 재산관리위원회 : 9일(오늘) 오후 1시, 회의실
- 독거노인반찬배달 : 13일(목) 오전 10시, 친교실

④ 신앙 독서 나눔 "복음을 정확하게" : 매 주일 오후 1시 30분, 소가재

⑤ 8월 한달 점심식사는 여전도회 주관으로 5,000원에 판매합니다.
- 9일(오늘) 메뉴 : 제육덮밥(담당 : 한샘 여전도회)

⑥ 청년부 여름수련회 : 7일(금) ~ 9일(주), 횡성 현대리조트엔제너두

⑦ 교우소식
- 장례 :故이경자 권사(101구역), 7일(금) 별세



1부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동교회**
ANDONG PRESBYTERIAN CHURCH
안동교회 1909년 3월 첫주일창립

제773호
2026. 8. 9
광복기념주일

2026년도 주제 :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
창조세계 보전의 해

“자유를 사랑으로 완성하라”

갈라디아서 5:13

광복은 억압에서 벗어나 빛을 되찾은 역사적 은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
유를 얻은 뒤 그 자유를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인지를 묻습니다. 그리스도께
서는 우리를 율법의 정죄와 죄의 지배에서 자유롭게 하셨으며, 바울은 그 자
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역사의 진실을 기억하고 정의를 구하되, 증오가 우리 영혼의 주인이 되게 해
서는 안 됩니다.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어 우리를 자유롭
게 하셨음을 기억하며, 서로 다른 우리가 한 몸임을 확인하는 은혜의 식탁입
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미워하지 않을 자유, 용서할 자유, 낮아져 이웃
을 섬길 자유를 얻었습니다.

소그룹 나눔 질문

1. 나는 ‘자유’나 ‘용서’를 앞세우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거나, 생각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밀어낸 적이 없습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돌아봅
시다.
2.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받은 자유를 사랑과 섬김으로 사용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먼저 듣기, 사과하기, 용서하기, 약한 이웃 돕기 가운데 실천
할 한 가지를 나누어 봅시다.



온라인주보



서울시 종로구 윤보선길 57 (안국동)
57, Yunboseon-gil, Jongno-gu, Seoul, Korea
TEL. (02) 733-3395 FAX. (02) 733-3398
E-mail. office@andong-ch.org http://www.andong-ch.org

광복기념주일에배

1부 예배 : 오전 9시 인도 : 황영태 목사

개회예전

<인사>
(목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중)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 우리 다함께 일어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징울림> 말 은 이

<성경의 선언> (시130:5)
(목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개회송> (오르간)

<오늘의 기도>
(목사)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의 생명과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요한 은혜에 우리 마음을 열게 하셔서
사랑과 기쁨과 평화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소서.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 계시고 다스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회중) 아멘.

찬 송 25장 다 갈 이

<죄의 고백과 용서>

(1) 고백으로의 초청(히4:14-16)
(목사)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아시는 분이심을
기억합니다.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으
나 죄는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
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
히 나아갑시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우리의 죄를 다같이 조용
히 고백합니다.

(잠시 묵상기도)

(2) 죄의 고백
(다같이)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은 주님께 진실로 회개하며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의 자비하심을 간구하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였으며,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못하였나이다. 공의를 행하지 못하였으며, 인자
를 사랑하지도 못하였으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지도 못하였나
이다.

오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
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
의 성령을 우리에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우
리에게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풍성한 영으로 우리를 불도소서.

(3) 용서의 선언
(목사) 복된 소식을 들으십시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용서함을 받은 것을 아시고, 평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회중) 아멘.

<평화의 인사>
(목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회중)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 송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 갈 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찬송 후, 자리에 앉습니다.)

말씀예전

<조명하심을 구하는 기도>
(목사)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
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로
이 하늘의 양식을 갈망하게 하시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되며, 영생으로 이끄는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늘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회중) 아멘.

찬 송 580장 다 갈 이

<구약의 말씀> 이사야 58:6-8(1038) 한 미 진 권 사
(낭독하기 전에)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낭독한 후에) (봉독자)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회 중)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신서 말씀> 갈라디아서 5:13-15(308) 한 미 진 권 사
(낭독한 후에) (봉독자)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회 중)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말 씀 묵 상 >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민동림 권사
오르간

<복음서 말씀> 요한복음 8:34-36(159) 황경선 권사
(낭독한 후에) (봉독자)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회 중)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침묵)

<설 교> 『자유를 사랑으로 완성하라』 황영태 목사

<설교 후 응답> (계5:12)
(목사)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
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회중) 아멘.

<믿음의 확증: 신앙고백(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회중의 기도> 황경선 권사